

현대석유화학, 사상 최대실적 기록!

SM·EG 영업호조로 순이익 1476% 증가 ... 실적 상승 당분간 지속

LG화학-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현대석유화학이 1/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.

현대석유화학은 2003년 1/4분기 매출액 5965억원, 영업이익 989억원, 경상이익 381억원, 순이익 47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.

매출액은 2002년 1/4분기 4615억원보다 29.3%, 영업이익은 2002년 1/4분기 405억원보다 144.2% 늘었으며, 경상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6250%, 1476% 증가한 것이다.

현대석유화학은 1/4분기 SM과 EG 등 기초 유기화학물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고 미국과 유럽 등 역외권 88개국에 대한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주장했다. 또 2/4분기에도 지속적인 실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.

<기업구조조정촉진법> 적용 1호 기업인 현대석유화학은 1998년 이후 적자가 지속됐지만 2002년 흑자 전환과 함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실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.

한편, LG-호남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현대석유화학은 매각 완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기업결합 심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5/20>